

호랑이, 4위 굳히기 곰사냥 나선다

■ 금주의 프로야구

KIA, 5위 두산과 잠실서 3연전 1.5게임차...사활전 총력전 예상

“4강행의 길목에서 ‘맹적(猛敵)’ 꿈을 만났다”

프로야구 KIA가 이번 주(9월 12일~17일) 4강행 티켓의 마지막 주인 자리를 놓고 두산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11일 현재 4위 KIA와 5위 두산은 1.5게임차 범위 안에서 접전 중이다. 두 팀 모두 19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으로 정면 대결은 5경기. 특히 이번 주말엔 잠실구장에서 16, 17일 더블헤더를 포함 3연전이 예고돼 있다.

양팀 모두에게 4강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전인 셈이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선 KIA가 7승5패1무로 다소 앞서있다.

하지만 이번 주말 3연전의 경우 일정만 놓고 보면 오히려 두산이 유리하다.

두산은 12,13일 롯데와 2연전을 치른 뒤 이틀간의 꿀맛같은 휴식을 취하고 KIA를 만난다.

이에 비해 KIA는 12일 대구 삼성전, 13, 14일 광주 LG전, 15일 인천 SK전 등 3개 구장을 오가며 힘겨운 4연전을 벌여야 한다.

두산과 16일 첫 대결에 이어 17일엔 두

블헤더마저 소화해야 하는 KIA로선 딱딱한 일정이 다소 부담스럽다.

여기에 4위 복귀에 사활을 건 두산의 전력도 만만치 않다.

‘용병 듀오’ 랜들(13승)-리오스(11승)가 이끄는 마운드가 튼튼하고 ‘돌아온 거포’ 김동주의 부활과 도루부문 1위(44개)의 호타 존족 이종욱의 방망이도 매섭다.

서정환 KIA 감독도 “이번 주는 최악의 일정”이라면서 “두산과의 더블헤더를 포함한 3연전이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마운드의 보강으로 상승 기류에 올라 탄 KIA의 전력이라면 즐거운 ‘곰’ 사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투펀치’ 그레이싱어(12승)-김진우(10승)가 포진한 선발진과 ‘미들맨’ 정원이 복귀하고 한기주-윤석민 ‘계투조’가 버티고 있는 마운드는 8개 구단 가운데 최강을 자랑한다.

여기에 ‘안타왕’ 이용규(132개·0.318)

◇프로야구 중간순위 (11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64	44	3	0.593	-	1승
2	현대	62	49	1	0.559	3.5	1승
3	한화	57	49	2	0.538	6.0	1패
4	KIA	53	51	3	0.510	9.0	1승
5	두산	52	53	2	0.495	10.5	1패
6	S K	54	60	1	0.474	13.0	1승
7	롯데	44	57	2	0.436	16.5	1패
8	L G	43	66	4	0.394	21.5	1패

와 지난주 타율 0.533의 불꽃타를 날린 김원섭, 장성호(0.301) 등이 포진한 타선도 든든하다.

따라서 KIA는 두산과의 3연전에서 최소 2승 1패의 성적이 목표다.

지난해 최하위의 수모를 씻고 4강행을 꿈꾸는 KIA가 이번 주 두산을 누르고 안정적인 4위 자리를 확보할 지 팬들의 기대도 KIA의 상승세 만큼이나 높아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승마 점프 이맛이야!”

캐나다의 란 밀러가 11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CN인테셔널오픈컵 승마대회에서 워터프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테니스 황제는 역시 페더러

US오픈테니스 3연패 위업

佛오픈 우승맨 그랜드슬램

‘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1위·스위스)가 총상금 189억원이 걸린 올해 마지막 메이저 테니스대회인 US오픈 남자 단식 3연패를 달성했다.

페더러는 11일(한국시간)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홈코트의 앤디 로딕(10위)을 3-1(6-2 4-6 7-5 6-1)로 간단히 제압하고 지난 2004년부터 이 대회를 3년 내리 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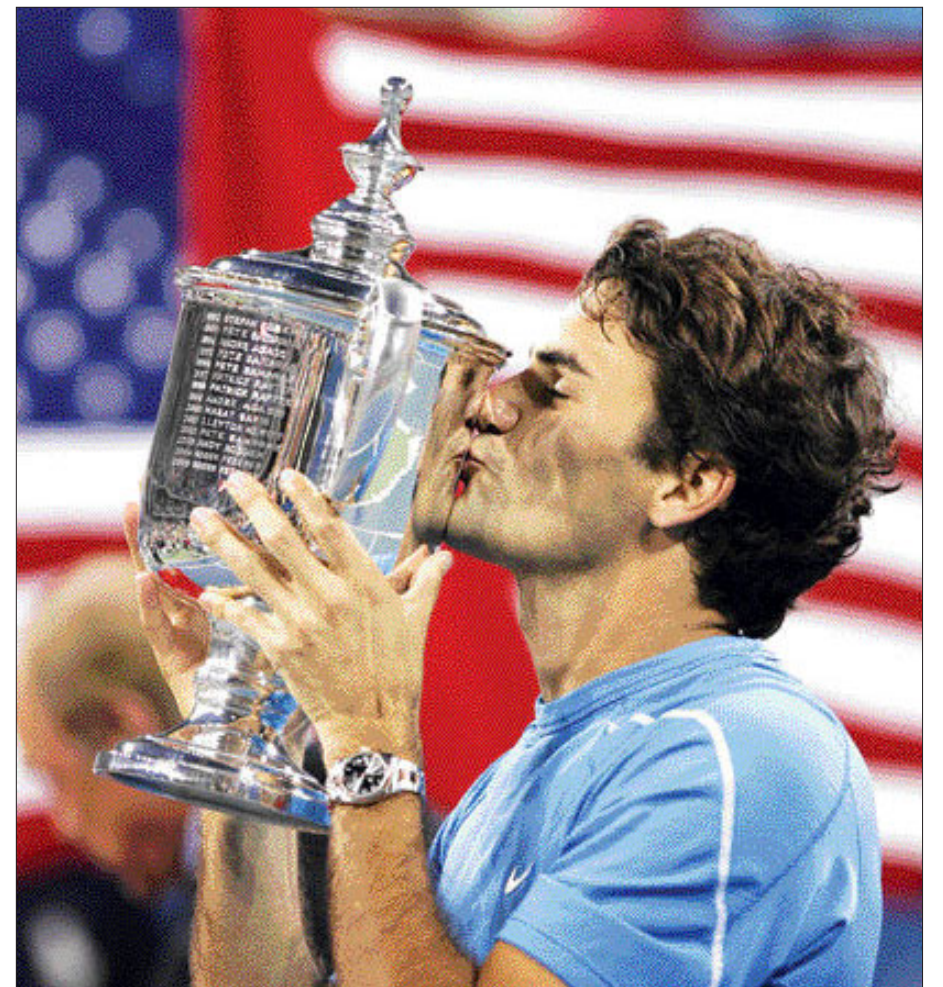
올 Wimbledon에서 4연패 위업을 이뤘던 페더러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통산 9번째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차지했다.

페더러는 Wimbledon과 끈이 열리는 US오픈을 3년 연속으로 연속 우승한 역사상 첫 번째 선수가 됐다. 아울러 이번 랜들(1985~1987년) 이후 19년만에 이 대회를 3연패한 선수가 됐다.

페더러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Wimbledon 결승에서 격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다시 맞붙은 로딕을 상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완승했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11승1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지켰다.

올해 프랑스오픈에서 ‘윈스턴재’ 라팔레 나달(2위·스페인)에게 패했을 뿐, 호주오픈, Wimbledon, US오픈을 모조리 석권한 페더러는 최강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그가 1년에 4번 벌어지는 메이저대회에서 3번 우승하는 것은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다.

페더러는 클레이코트에서 열리는 프랑스오픈만 제외하면 ‘카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 명실상부한 당대 최고 선수가 될 전망이다.



로저 페더러가 11일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US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앤디 로딕을 3-1로 꺾은 뒤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다.

우승상금 120만 달러를 챙긴 페더러는 올해 벌어들이는 상금만 610만 달러를 넘어섰다. 역대 총상금은 2천630만 달러다.

전날 여자친구인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의 생애 첫 US오픈 정상 등극을 지켜봤던 로딕은 이날 동안 우승을 노렸으나 페더

러를 극복하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했다. 한편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철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밥 브라이언과 짝을 이뤄 출전한 혼합복식에서 체코의 크베타 페슈크-마틴 뎀조를 2-0(6-2 6-3)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李 승업 40홈런·100타점 이번주 꼭 쏘겠다

왼쪽 무릎 통증에서 회복 중인 이승업(30·요미우리 라이온즈)이 휴식일이 이틀이나 예정된 이번 주 집중력을 최대한 살려 40홈런과 100타점 동시 돌파를 노린다.

요미우리는 12~13일 아키타현 고마치 스타디움과 풀케스트 미야기 스타디움에서 주니치 드래곤스와 홈경기를 치른다.

14~15일은 쉬고 16~17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방문 경기를 벌인다. 이어 월요일 휴식 없이 곧바로 히로시마로 이동, 18일과 19일 히로시마 시민구장에서 카프와 방문 경기를 치른다.

6경기가 열리는 구장이 모두 야외구장이다. 지난 7일 고시엔구장에서 38~39호 홈런을 연속으로 터뜨린 이승업이 타 트인 야외구장에서 장쾌한 홈런 행진을 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도쿄돔에서만 21발을 쏘아올려 1988년 개장한 도쿄돔 한 시즌 최다 홈런에 1개차로 다가선 이승업은 다음주 23~24일 홈에서 열리는 한신과 일전에서 신기록 수립에 도전한다.

통증 치료 차원에서 한 경기 3타석에 한정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승업은 휴식일이 이틀이나 있는 점이 반갑다.

또 한신과 더불어 가장 많은 홈런(7개)을 뽑아낸 요코하마와 주말 2연전을 벌인다는 면에서 홈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승업은 홈런이 1개 뿐인 히로시마 구장에서 대표를 가동하면 센트럴리그 전구장 멀티 홈런도 달성하게 된다.

9월 들어 5승2패를 올리며 뒤늦게 페이스를 회복한 요미우리는 11일 현재 60승2무66패로 센트럴리그 4위를 달리고 있다.

4위 야쿠르트와 승차는 3게임으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남은 18경기에서 5할 승률 및 리그 3위라는 올 시즌 마지막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특히 내년 시즌 개막전 경기 홈 개최권이 걸려 있는 리그 3위 달성이 더욱 중요하다. 언제나 그랬지만 4번 타자 이승업의 순도 높은 한 방이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94타점으로 리그 타점 부문 4위에 랭크된 이승업은 요미우리 선수로는 4년 만에 100타점 진입을 눈 앞에 뒀다. 2002년 마쓰이 히데키(뉴욕 양키스)를 끝으로 3년간 요미우리에서 100타점을 넘긴 선수는 없었다.

홈런 타이틀을 거의 손에 쥐은 이승업은 잔여 경기수가 경쟁 선수보다 적지만 타점 타이틀도 아울러 획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신수 5경기 연속 출루 안타행진 4경기로 마감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4경기’로 마감했지만 볼넷 출루로 5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고 귀중한 희생 번트도 팀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추신수는 11일(이하 한국시간) 시카고의

US셀룰러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원정경기에 우익수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장, 4타석에 나서 볼넷 1개와 희생번트를 포함해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전날 같은 팀과 경기에서 올 시즌 3번째 3

루타를 때렸던 추신수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중단됐다.

볼넷 1개를 골라 5경기 연속 출루했지만 삼진을 두 차례 당했다.

하지만 희생번트로 승리의 디딤돌을 냈다. 시즌 타율은 종전 0.284에서 0.280(118타수 33안타)으로 조금 떨어졌다.

클리블랜드는 9회 비터 마르티네스의 1점 홈런으로 3-2 역전에 성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